

우리가 그린, 봄愛울림...
청춘의 따뜻한 봄날 이야기



봄愛울림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습
(출처-그린총학생회)

우리가 그린 한농대!
'그린' 학생회장단을 만나다

지난 2024년 11월 28일, 제29대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어 '그린'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본 기사는 이례적으로 조기에 치러진 선거 후 바빠 지내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학생회장단 사진
(출처-그린 총학생회)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 안녕하세요, 제29대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한우전공 최창익입니다. 저는 광주출신의 장엄농으로, 농업관련 기반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 후 14년간 서울에서 영업과 마케팅 분야에 몸담았고, 인생 후반을 어떤 일로 채워갈지 고민하던 중, 가족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로서 농업에 매력을 느껴 2023년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부: 안녕하세요, 부학생회장 채소전공 선민지입니다. 저는 작은 동네 구례군출신이며, 고등학교 때 환경운동을 꿈꿨습니다. 이후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야가 농업이라 생각해 한농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Q: 두 분은 서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부: 1학년 제1회 한농대 스피치대회 때 회장님과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꿈꾸는 학교, 학교의 변화에 대해 함께 의논하였으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의 시작에 함께하자고 기약했습니다.

Q: 총학생회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정: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중 하나인 40대 초반의 3년을 보내는 이 학교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힘

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생각이 학교와 농업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총학생회장직에 도전하였습니다.

Q: 주요 공약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정: 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농업이야기와 농산물콘텐츠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부: '농대 라이벌전'입니다. 농업계열 타대학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교류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회장단과 소통하고 있으며, 한농대 학우들이 타대학 농업계열 친구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회장단이 꿈꾸는 학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정: 제가 꿈꾸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생, 교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농축수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꿈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모인 우리 학교가 미래 농축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자부심이자 강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 제가 꿈꾸는 한농대는 학우들에게 많은 경험과 기회를 주는 매개체입니다. 바라는 학교보다는 변화하는 학우라고 생각하며 열정과 배움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 청년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3월 4일 개강 후,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입생 지역별 OT, 기숙사 폐문시간 연장, 비대면점호, E-Sports 대회 등 한농대 재학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 두 발로 달리는 그린 총학생회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문화부 송민규 기자
minguda97@naver.com

지난 4월 30일 수요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대학 본부 앞 잔디밭에서 총학생회 '그린'의 주관으로 '우리가 그린, 봄愛울림(이하 봄愛울림)' 행사가 진행됐다. 봄愛울림 행사는 작년 총학생회 '울림'에서 처음 기획했던 행사로,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학생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린 총학생회에서는 학우 간의 소통, 화합 증진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행사의 명맥을 이어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플리마켓, 야구 관람, 맥주 빨리 마시기 이벤트, 밴드부 SLAM 버스킹 등이 있었다. 17시 30분부터 진행된 플리마켓에서는 재학생이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판매했고, 이어서 18시 30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KIA와 NC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야구 관람 도중 20시에는 맥주 빨리 마시기 이벤트를 진행했고, 한우전공 3학년 김민수 학생이 '한농대 맥주왕'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밴드부 SLAM의 버스킹 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린 총학생회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안전 계획을 수립했다. 안전요원이 한 시간마다 순찰하여 음주 관련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배달 구역을 설치했고, 행사가 마무리된 후 잔디밭 및 학생회관 인근을 정리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봄愛울림 총책임자 원예환경시스템전공 3학년 전영석 학생은 "음주와 관련된 행사라 행사 직전까지 불안에 떨었는데, 한농대 학생분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행사도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소감을 남겼다.

봄愛울림 행사를 통해 1학년 신입생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고, 3학년 학생들은 졸업 전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2025년 그린 총학생회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문화부 송민규 기자
minguda97@naver.com

2025 알리미 선발,
한농대 홍보의 새 얼굴들



한농대 15기 알리미 임명장 수여식
(출처-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우리 대학이 2025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홍보대사 '알리미' 15기를 선발하였다. 올해로 15년이 된 한농대의 홍보대사 알리미는 학생모델 활동, SNS콘텐츠 제작, 대학견학 안내 지원, 방송출연, 언론매체 인터뷰, 브이로그 제작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한농대의 공식단체이다.

이번 15기 알리미는 대학 홍보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한농대 대표 학생모델로, 대학의 장점을 알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인재상으로 삼았다. 1, 3학년 재학생 중 총 6명을 선발하였으며 2단계로 나눠 평가심사하였다. 1차 심사는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 서류와 1분 자기소개 영상 제출로 진행했고, 2차 심사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선발된 15기 알리미는 문지민(말산염전공 3학년), 박다니엘(과수전공 3학년), 임태원(낙농전공 3학년), 정영주(버섯전공 3학년), 조정래(식량작물전공 3학년), 이하은(화훼전공 1학년)이다. 15기 알리미는 매달 알리미 활동비로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4~6월, 9~11월 총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15기 알리미를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15기 알리미 이하은(화훼전공 1학년)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5 15기 한농대 알리미 이하은(화훼전공 1학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15기 알리미로 선발된 25학년 화훼전공 이하은입니다.

Q. 한농대 15기 알리미로 최종 선발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긴장되지만, 알리미 활동을 하며 우리 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가 큼니다. 많은 친구와 함께 소통하고 좋은 경험을 나누며 한국농수산대학교가 농업의 최전방에서 미래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최고의 학교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홍보촬영 현장
(출처-문지민기자)

Q.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본 알리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알리미영상을 통해 농업에 관심이 생겨 농업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한농대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알리미 영상을 통해 농업의 비전을 보고 농업인이라는 꿈을 가졌듯이, 다른 사람들도 저의 알리미영상을 통해 앞으로 미래농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과 관련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여 미래 농수산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가치와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한농대 알리미들은 대외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학우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 그중에는 우리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과 농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5기 알리미가 한농대의 홍보대사로서 우리 대학에 대한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문화부 나은빈 기자
gfriend1202@naver.com

한국농수산대학교 리그오브레전드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된 우리 대학 리그오브레전드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그린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였으며, 학부별로 모집을 제한해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총 8개 팀(작물산림학부 2팀, 원예학부 3팀, 축산학부 2팀, 총학생회 1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8강과 4강은 3판 2선승제로, 결승전은 5판 3선승제로 진행됐다.

준우승은 원예학부 '원시대박' 팀이 차지했다. 원시대박 팀은 3학년 학생들의 리더십이 돋보였으며, 뒤따르는 1학년 학생들의 분전 또한 눈부셨다.

우승의 영예는 작물산림학부 '미정' 팀이 거머쥐었다. 미정 팀은 다섯 명이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였고, 그 결과 8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만 내주며 당당히 우승컵에 이름을 새겼다.

이번 교내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는 같은 학부 내에서 팀을 꾸려 출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우들과 친목을 다지며 협동심을 고취하고 싶은 우리 대학 학생들은 다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바란다.

문화부 송민규 기자
minguda97@naver.com



시상식
(출처-그린총학생회)

한농대의 새로운 도약, 이주명 총장을 만나다

지난해 12월, 우리 대학교의 새로운 리더로 이주명 총장이 취임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다양한 농식품 정책과 국제 농업협상을 추진하며 농어업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로, 이번 취임을 통해 한농대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보 기자단은 이주명 총장을 만나 그의 농어업정책 철학과 우리 대학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Q: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법학을 공부하시면서 흥미를 가졌던 분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농어업과도 관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할 때는 농어업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에서 쌀 등 식량정책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WTO 농업협상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등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재협상 등의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한국대표부에 파견되어 WTO 농업협상과 SPS 협상을 담당하면서 미국과 같은 수출국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에 관련된 국익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Q: 1994년에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신입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첫 근무지는 농림부 법무담당관실이었고, 그곳에서 법령검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준비 업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까지 차관회의 자료를 검토한 뒤 아침에 가져갈 생각으로 사무실에 두고 퇴근했는데,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지 못해 관화동 정부청사에서 아침 8시에 차관님게 보고드리려던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다급하게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간신히 8시 57분에 차관회의장 앞에서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차관님께서 화를 내시기보다는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중요한 건 순간의 실수보다 평소 태도이며,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경험 이후 저는 직원 동료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으려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Q: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셨는데, 그중에서 의미 있었던 정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여러 정책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례는 ‘청년영농정착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시절(2017~2019년)에 만든 정책으로, 처음에는 1,500명을 선발해 매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00명에게 지원이 이뤄졌고, 현금 대신 농협 카드로 지원금을 제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최근엔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는 등 사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농림부 협동조합과에 근무하던 시절



이주명 총장 인터뷰
(출처-문지민 기자)

(1999~2002)에 추진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과 ‘농협 구조개선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경영부실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선 농축협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농협구조개선법’을 만들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차 5개년 계획(2005~2009) 수립’을 꼽을 수 있습니다. WTO출범 이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도농간의 소득과 복지 격차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촌복지, 교육, 지역개발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계획은 2002년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2016년 식품산업정책관 재직 시절 추진한 ‘할랄식품의식산업정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무슬림 시장을 겨냥해 아랍에미리트(UAE)와 할랄 및 농업협력 MOU 체결하고,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할랄 인증 및 무슬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인증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에 농무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종합대책,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및 국회 비준동의, 쌀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Q: 공직에서 정책을 기획·추진하시다가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까요?

A: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정책기획, 농업, 축산, 식품, 국제업무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과 병해충 안전관리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농어업인재 육성교육에도 반영하여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농어업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금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 농어업 현장에서 잘 정착하고, 농어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IT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어업 교육을 강화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농어업은 단순 생산기술을 넘어서,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과 온습도 등의 자동제어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과 정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생산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인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가공과 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어업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취업사에서 ‘축산실습교육센터’와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ICT 축산 스마트실습장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과 방역, 분노 처리와 약취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스마트 수산양식장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어류양식과 해조류양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내수면과 해수양식을 포함한 스마트 어류양식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조경 분야에서도 스마트양묘장 조성을 위해 산림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Q: 현재 운영 중인 실습장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실습장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고 실행 예정에 있으신지요?

A: 2학년 장기현장실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200여 개 실습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 교육,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외에도 실습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실습교육에 대해 평가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우리 대학은 장기현장실습이 있어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링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1, 2, 3학년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문회나 연구 모임의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요?

A: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현장실습을 다녀온 3학년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수업에 대한 바람이나 요구사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997년에 개교했고, 2027년이면 개교 30주년을 맞습니다. 현재까지 약 8천 명이 졸업했고, 곧 1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문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30주년을 맞아 1기생부터 학교에 다시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총동문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현장 교육 수요를 파악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저희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성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대학도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에 관해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저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요?

A: 기후변화는 기온, 습도, 계절의 흐름을 변화시키며 농업과 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주산지였던 대구지역에서 이제는 사과 재배가 어려워졌고, 사과 대신 아열대 과수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생태 변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핵심은 기후변화, 시장 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농업과 수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농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최신 생산기술과 가공·유통 역량을 갖추고,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우리 농수산업은 충분히 지속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이러한 농어업 미래를 이끌 정예인력을 양성해 우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농어업의 이론을 배우고, 현장을 익혀 나가길 기대합니다. 저도 한농대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명 총장은 학교의 교육과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들이 한국 농수산대학교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및 타 대학, 동문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한농대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주명 총장의 역할과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박소민 기자
parksomin3131@gmail.com

한농대 x 농협중앙회 MOU협약 체결!



협약식 현장
(출처-문지민 기자)

2025년 4월 2일, 우리 대학과 농협중앙회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한농대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습용 농기계와 도서관 내에 학생복합문화 공간조성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였다.

우리 대학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학생 역량개발 및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교육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과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한국농수산대 재학생 역량개발 및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2.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양 기관 교육인프라 공동이용
3. 농기계정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농어업분야 ESG 실천문화 확산
5. 농업·농촌 연구사업, 인적교류,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교수진과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및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실습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농협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 계기에 한농대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스키터모드, 다목적 관리기 등 실습용 농기계를 지원하고, 도서관 내에 학생 복합문화 공간조성을 지원하였다.

우리 대학 이주명 총장은 “기후변화, 고령화,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한농대 졸업생을 비롯한 청년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열정을 가지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문지민 기자
dream_jimmy@naver.com

과거는 미래의 나침반, 졸업생 실전창업특강을 알아보다

졸업생 농수산실전창업 특강					
날짜	03월11일	03월18일	03월25일	04월01일	04월08일
강사 (학번)	이호명 (채소, 09)	이 훈 (특작, 17)	정왕용 (한우, 03)	윤지성 (채소, 14)	김영재 (원시, 18)
날짜	04월15일	04월29일	05월13일	05월20일	05월27일
강사 (학번)	김홍수 (버섯, 15)	김기남 (식량, 15)	안태우 (양돈, 06)	박덕수 (과수, 14)	김지용 (특작, 14)
날짜	06월03일				
강사 (학번)	강승원 (수산, 10)				

2025년, 새롭게 생긴 강의가 있다. 바로 ‘농수산실전창업’이다. 이 강의 기존의 강의들과 달리 1, 3학년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고, 전공별 추천을 받은 졸업생들이 직접 실전창업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특강이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3월 11일을 시작해 6월 3일에 마무리하기까지, 총 13명의 졸업생이 특강을 맡았다. 이번 특강의 경우, 다양한 전공과 작목, 03학번부터 18학번에 이르기까지 영농 초, 중, 후기 경영에 대해 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다. 다음의 표에서 강의 일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편집부 문지민 기자
dream_jimmy@naver.com

전공 선택, 진로를 그리는 첫 번째 질문

전공은 단순한 수업의 영역을 넘어, 졸업 이후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우리 학교와 같이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전공선택이 곧 현장경험의 방향이자 미래 농업인의 성장 경로가 된다. 본 기사는 전공선택을 앞둔 학생과 전과를 고려 중인 재학생이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실제 전공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학습 커리큘럼 소개뿐 아니라 실습환경, 졸업 후 진로, 전공생들의 조언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대학에는 총 18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번 1분기 기사에서는 원예학부(채소, 원예환경시스템, 화훼, 과수)를 우선으로 다루었다.

1. 채소전공 – 3학년 문현성

채소산업의 핵심 인재를 키우는 교육 과정

채소전공은 미래 먹거리산업을 주도할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전공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전공은 기본적인 채소 영양학과 관리학을 배우는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해, 2학년에는 실습을 통해 재배작물을 직접 관리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다. 3학년 과정에서는 졸업 후 재배할 작목을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학습한다.

다양한 실습 기회와 현장 중심 교육

채소전공의 장기현장실습의 실습장은 크게 농장과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연구기관인 원예원에서는 채소의 종자 및 약품연구가 진행되며, 농장실습에서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법을 익힌다. 특히, 체험농장과 유기농산물 생산농장에서 실습할 기회도 제공되어 학생들은 다양한 재배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교내실습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실습동 내에서 직접 밭을 조성하고, 모종을 심고, 정식 후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수확까지 경험한다. 문현성 학생은 이 수업에서 관리기 작업을 할 때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땅이 젖은 상태여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힘을 합쳐 기계를 밀며 작업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 수업을 통해 직접 재배한 배추로 11월 말 학교에서 김장을 해 수육과 함께 나눠 먹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

채소는 이론과 현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문현성 학생은 “지금도 여러 실습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론보다는 직접 밭에서 식물을 만지며 배우는 실습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습을 통해 작물의 재배방법을 직접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졸업 후 진로와 전망

채소전공 졸업생의 약 70%는 가업을 승계하며, 창업과 취업은 나머지 비율을 차지한다. 채소재배는 토지와 자본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 전공생 중에서도 창업보다는 승계가 일반적인 편이며, 졸업생들이 선택하는 작목도 굉장히 폭넓다. 다만 채소전공은 3학년만 50여 명에 달하는 대형 전공으로, 이로 인해 학우들 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형성되며, 다양한 작물에 대한 정보교류도 활발하다. 또한, 학과 특성상 여러 작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폭넓은 농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는 채소전공을 졸업하게 될 경우 채소 작물 분야에서 생산, 유통, 마케팅, 브랜딩까지 도맡아 경영할 수 있는 다각형의 농업 전문 경영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소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강과 환경의 이슈도 대두되면서 채소의

필요성은 점점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현성 학생은 “채소에 대한 비전을 가진 학생이라면 전공 수업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에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땀 흘리며 키운 채소가 어느 한 가족의 밥상 위에 올라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 줄 때, 우리는 그 보람으로 움직인다. 그 보람을 같이 느껴 보자”고 덧붙였다.

2. 원예환경시스템전공 – 졸업생 서원재

재배를 넘어 환경을 설계하는 농업

원예환경시스템전공은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구조와 자동화기술, 그리고 재배환경 조성 전반을 배우는 전공이다. 이 전공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법을 넘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서원재 졸업생은 “우리는 재배학에 더해 재배 환경 조성학을 배운다”며 이 전공의 정체성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1학년에는 온실 설계도나 물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온습도 계산방법을 익히고, CAD 프로그램, 식물생리학, 양액조성 계산 등 기초 지식과 기술을 함께 배운다. 온실환경만을 다루는 만큼 모든 실습은 노지가 아닌 시설재배 중심으로 진행된다.

3학년이 되면 학습은 더욱 정밀해진다. 수확량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제어 기법, 자동화설비의 활용, 선진 스마트팜 기술 분석 등이 핵심 수업 내용이다. 서원재 졸업생은 식물공장 수업에서 염채를 키우면서 색 발현이나 성장 속도를 관찰하며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을 직접 다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실을 배우고, 미래 농업을 구축하다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생산농장과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연구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이나 원예특작과학원 등에서 종자개발, 품종개량, 재배기술 실험 등을 진행한다. 생산농장의 경우 모두 시설 원예 기반농장으로, 자동화설비와 환경제어시스템을 실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전공에 등록된 실습장 중 노지재배를 하는 농장이 없는 전공이기도 하다.

원예환경시스템전공은 기술기반 농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절감과 자동화, 정밀제어기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미래 농업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쌓기에 적합하다. 서원재 졸업생은 “시설 원예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싶다면, 작물 재배는 물론 공학적 감각과 환경설계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이 전공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졸업 후 진로와 동문 간 유기적인 교류

졸업생의 진로는 대략 승계 50%, 창업 30%, 취업 20%로 나뉜다. 창업 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만, 청년창업농 대출을 활용해 시설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다. 취업은 농업회사법인이거나 농촌진흥청 등으로 진출한다.

이 전공의 또 다른 강점은 동문 간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졸업한 선배의 농장에 견학을 가거나, 창업한 선배의 가게 개업을 축하하며 파티를 여는 등 졸업 이후에도 긴밀한 네트워크가 유지된다. 전공생들끼리는 각자 재배하는 작물의 정보를 나누고, 타전공 학생들의 견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원예환경시스템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본 전공은 ‘몸으로 익히는 재배 기술’과 ‘머리로 설계하는 시설 공학’이 융합된 미래 지향적 전공이다. 자동화와 정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는 “우리가 배우는 기술은 단지 지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 농업을 앞모으는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원예환경시스템전공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과수전공 – 3학년 박다니엘

과실 하나가 말해 주는 농업의 정성

과수전공은 사과, 배, 복숭아 등 대표적인 과실류에 대해 고품질 생산부터 저장, 유통, 경영까지 전반적인 과수산업을 다룬다. 단순히 과일을 키우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고민해야 하는 전공이다. 과수는 단일품목 안에서도 품종에 따라 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공생은 과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섬세한 판단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

모둠부터 당도 측정까지,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1학년 과정에서는 수목생리학, 생산기술, 유통구조 등 과수에 대한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배운다. 2학년에는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생산 농장 또는 연구기관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다. 생산 농장에서는 과실수 관리와 수확을 중심으로, 연구기관에서는 나주배연구소, 사과연구소 등에서 품종 개량이나 생리학적 분석 등 심화된 학습이 이뤄진다.

3학년에는 자신이 집중할 작목을 하나 정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실습 위주의 수업을 이어간다. 과실수의 영양관리, 병해충방제, 생장조절 등을 배우며 수확한 과실의 당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학교 축제에서 판매하거나 학생들끼리 함께 나눠 먹는 실습도 있다. 다만 과실수는 성목이 되기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작물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다. 박다니엘 학생은 “과실수를 직접 관리하고 열매의 수확까지 하는 이러한 실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창업을 꿈꾼다면 더 필요한 시간과 계획

과수전공의 졸업생 중 약 70%는 가업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창업이나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축산업처럼 막대한 초기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과실수 특성상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없어 초기 자본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창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창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익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신중히 고민한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과수 관련 연구소나 품질관리기관 등으로 진출한다. 이처럼 과수전공은 단순한 재배기술을 넘어 유통과 경영전략, 병해관리와 생장조절, 저장기술까지 복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전공이다.

과수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과수는 기후와 품종, 관리법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작물이다. 때로는 병해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날씨변화로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한 노력은 달콤한 결실로 돌아온다. 박다니엘 학생은 “과수는 땀 흘린 만큼 단맛을 내고, 정성 들인 만큼 빛을 낸다”라며 과수전공의 매력을 전했다.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과실 하나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과수전공은 분명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4. 화훼전공 – 3학년 정수혁

감성과 기술이 만나는 산업

화훼라고 하면 대부분 ‘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화훼전공에서 다루는 범위는 그 이상이다. 절화반 아니라 관엽식물, 조경수, 다육식물, 선인장까지 다양한 형태의 식물을 재배하고 유통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산업이다. 정수혁 학생은 “화훼는 단순한 원예가 아니라 감성과 기술, 산업이 결합된 분야”라며, 그 매력은 공부할수록 더 깊어진다고 말한다.

방향을 정하고 깊이 파고드는 교육

1학년 과정에서는 식물생리학이나 원예학개론 등 화훼와 원예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이후 2학년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된다.

실습지는 농장과 연구기관으로 나뉘며, 농장도 생산과 유통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은 실제 작물재배를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반면, 유통실습지는 시장흐름과 시세파악, 트렌드감각을 키우는 데 적합하다.

3학년이 되면 절화와 분화 중 하나를 선택해 논문을 작성하게 되며, 수업도 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절화와 분화는 품종도 재배 시설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3학년에 접어들면 수업도 절화와 분화로 나누어 듣게 된다. 때문에 2학년 실습을 통해 진로 방향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선택한 작목은 종자부터 개화까지 모든 과정을 실습하며 직접 키우고 관찰한다. 실습시설은 PTC 온실, 노지, 하우스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키운 꽃은 재배 후 학생들이 각자 집에 가져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선물한다.

유통을 배우어 완성되는 화훼 산업

화훼전공은 전체 전공생의 절반 정도가 승계를 선택하며, 나머지는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한다. 취업은 주로 화훼 유통회사나 원예원 같은 기관으로 향하며, 창업은 가족경영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화훼는 기호성 작물인 만큼 품질만큼이나 ‘어떻게 팔 것인가’가 중요한 분야다. 정수혁 학생은 “앞으로 유통과 판매에 대한 수업이 좀 더 보강되면 좋겠다”며, 생산에 못지않게 유통감각 역시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화훼는 평당 소득이 높은 작목이 많은 만큼, 시장성과 기능성은 분명하다. 다만 대부분 온실재배가 필요해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고려해야 할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 산업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함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화훼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화훼산업은 단지 ‘예쁜 꽃을 파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축하와 응원의 의미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표현이 된다. 정수혁 학생은 “화훼는 단순한 재배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이 산업이 가진 낭만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했다.

기후와 트렌드, 정서적 소비까지 다양한 요소가 얹힌 이 산업은 변수가 많은 만큼 도전할 가치도 크다. 꽃 한 송이, 잎 한 장에 담긴 진심을 키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화훼전공은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수업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농업인으로 성장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번 기사에 담긴 여덟 개 전공의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실습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길을 찾으며 자신만의 영농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원예학부의 4개 전공의 교육과정과 실습환경, 졸업 후 진로를 중심으로 전공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승계, 창업,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각 전공은 작목과 산업에 따라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 있어, 학생들은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간다. 또한 전공생들 간의 커뮤니티와 졸업생과의 네트워크 역시 진로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나머지 전공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호를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전공선택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번 기사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박소민 기자
parksomin3131@gmail.com



제 26회 학위수여식
(출처-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제 26회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14일(금), 우리 학교 대강당에서 제 26회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 날 졸업생 596명을 포함해 학부모, 농어업 기관 등 8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으며, 이주명 총장이 직접 전공별 대표에게 학사·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이 자리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대학은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전문학사 480명, 학사 116명 총 5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연찬회

2월 18일(화)부터 2월 19일(수)까지 이틀 간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연찬회가 진행되었다.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연찬회
(출처-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에게 실습 규정에 대한 소개와 실습일지 작성 사례에 대해 소개했으며, 1학년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농작업 안전관리, 그 중에서 특히 실습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강조하는 등, 실무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입학식

2월 26일(목)부터 2월 27일(금)까지 대강당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2025학년도가 되어 달라진 점으로는, 바로 레크레이션이 추가된 것이다. 신입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OT 안내 및 졸업생의 ‘나의 대학 생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학교 생활 안내와 안전교육, 장기현장실습 소개, 심리검사 등이 함께 실시하였다. 교내 밴드 동아리



손혜령 졸업생의 수상식
(출처-손혜령)

‘SLAM’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또한, 지난 해 결성된 ‘그린 총학생회’가 주도하여 지역별 OT 프로그램을 운영, 1학년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장려하였다. 이는 우리 대학 설립 이래 처음 이루어진 행사이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상소식

올해 이어진 다양한 대회 수상 소식을 소개한다.

지난 3월 23일 진행된 제 1회 영천시수마협회장배 승마대회에서 장애물 100 class에서 이송주 학생(말산업전공,3학년)이 3등을, 4월 13일과 20일에 대한수마협회에서 주최한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에서 이송주 학생이 90class에서 1등을, 손혜령 졸업생(말산업학과)이 마장마술 D



학보사 기자단 임명식
(출처-도서관장)

class에서 2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학보사 기자단 임명식

지난 4월 1일, 우리 대학 학보사 기자단의 임명식이 있었다. 이 날 이주명 총장은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직접 임명장과 기자명함을 전달해주며 축하를 건넸다.

우리 대학의 공식 언론사이니만큼, 이주명 총장과 채철주 교학과장, 양재혁 도서관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개교 이래 처음 거행된 임명식이었고, 기자들의 사명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편집부 문지민 기자
dream_jimmy@naver.com

실습생 멘토링 시상식 열려… "진심이 전해져 더 기쁩니다"

2024년 우리 대학 ‘울림’ 총학생회는 1학년 신입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습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실습을 앞둔 1학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실습생 멘토링 시상식, 멘토 4명 선정

지난 3월 20일, 한농대 홍보관에서는 2025학년도 실습생 멘토링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멘토링 성과를 되짚고, 멘토들의 성장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3월 20일 실습생 멘토링 시상식 단체사진
(출처·장기현장실습팀)

총 4명의 멘토가 우수멘토로 선정됐으며, 시상은 최창익 총학생회장이 맡아 상품을 전달했다.

이날 수상자 중 한 명인 화훼학과 박서연 학생(3학년)을 만나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진심을 담았을 뿐인데 상을 받아서 감사해요”

◦ 박서연(화훼학과 3학년) 멘토 인터뷰

박서연 학생은 “특별한 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멘티들에게 내가 아는 걸 최대한 진심을 담아 전달했을 뿐.”이라며 겸손

한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국립원에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와 화훼과에서 실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막연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가능한 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멘티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멘티가 나중엔 먼저 연락해서 고민을 나눌 때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소통이 멘토링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꽃과 식물에 대한 애정으로 화훼학과에 진학한 박서연 학생은, 꽃을 활용한 차(茶)나 치유농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꽃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멘토링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다. “멘티마다 고민과 성격이 다르므로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죠.” 박서연 학생은 그만큼 멘토의 역할을 깊이 있게 고민해 왔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그는 1학년 후배들에게 이렇게 응원하는 말을 전했다.

“1학년 때는 뭐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헤매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힘들 땐 혼자 끙끙 앓기보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진심을 담아 멘티들과 소통해 온 박서연 학생의 이야기는, 멘토링의 본질이 ‘지식 전달’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준 그 마음은, 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자, 권희윤 담당자의 이야기

이번 멘토링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2024년도 학생회 ‘울림’ 실습 부원 권희윤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 고민을 밝혔다.

“1학년 학생들이 선호하는 실습장 리스트를 취합한 뒤, 멘토링에 참여하려는 2학년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작년 실습부 부장이었던 선민지(현 총학생 부회장) 학생과 협력해 더 원활한 연결이 가능했다고도 덧붙였다.

멘토링은 온라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다.

시상 기준은 멘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순이었다. 권희윤 담당자는 “실습부 담당 주무관님이 우수 멘토에게 상품을 주자고 제안하셔서, ‘레디백’이라는 실용적인 상

사회부 이유빈 기자

t22ntitan@naver.com

1학년들을 위한 실습장 선택 가이드

지난 3월, 우리 대학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1학년들을 맞이하였다. 또한, 2학년들은 국내·외 선진경영체에서 현장교수의 지도 아래 장기현장실습 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각 교수님들께서는 1학년 학우들에게 실습장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충분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이에 따라, 이번 학보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실습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정아 ■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식량작물을 전공하는 21살 정정아입니다. 현재 2학년이고 실습을 다니고 있어요.



도양화학연구소
(출처·정정아 학생)

Q: 현재 실습하고 있는 곳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 수 있나요?

A: 제 실습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Q: 실습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 혹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현재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방식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재배작목, 재배방식, 재배지역 같은 것들 말이지. 미래에 창업할 때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농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효과적인 농장은



농업기상실험실
(출처·정정아 학생)

영을 계획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Q: 실습장을 선정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모으셨나요?

A: 전공 선배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습경험에 대해 자주 여쭙었어요. 실습장에서 어떤 것을 주로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과 실습장 선정에 대해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제 성격과 목표에 맞는 실습장을 추천해주셨어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죠.

Q: 실습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제 실습장에서는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서비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최근 서비스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 응답을 제가 정리했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이 처리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연구원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에 얼마나 노력을 쏟으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기상예측은 수학적 난제거든요. 그럼에도 묵묵히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Q: 현재 실습장을 1학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추천한다면 어떤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A: 제가 1학년일 때 선배들께서는 연구소에서 전혀 배우는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구소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직접 와보니 들었던 것과 달랐어요. 배울 기회가 정말 많지만,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학교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만 현장은 가르쳐 달라고 계속 노력해야해요. 많이 노력할수록 많이 배우는 겁니다. 현장교수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모르는 것은 넘어가지 말고 찾아보세요. 농진청에서는 세미나와 워크숍 일정이 매일 있으니 일과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꼭 참석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를 포함한 농진청 산하기관 실습장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친구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Q: 내년 실습장을 선택해서 갈 1학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모든 실습장은 각각의 사정이 달라요. 하루일과, 실습 강도, 식사, 숙박, 실습비 등등 현장교수님도 다 달라요. 그러니 교수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막상 실습을 생각보다 힘들거나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학생 신분일 때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실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점만 눈에 보이게 되어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수련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현실을 뚝수 배우세요.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 최창익 ■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전공 23학번 최창익입니다. 저는 2024년도 충북 보은에 있는 이터바이오택이 운영하는 한우농장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Q: 실습했던 곳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 수 있나요?

A: 제가 실습한 이터바이오택은 일반 한우농장이 아니라 한우 수정란 사업을 하는 실습장으로서, 일반농장과 같이 한우 사양관리, 번식관리 등의 실습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습장에서 운영하는 수정란채취와 정액스트로우 제작도 실습하였습니다.

Q: 실습장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 혹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창업농으로서 일반적인 한우농장 창업같은 경우 최근 땅값 상승, 건축비 상승 등

품을 준비하게 됐어요.”라고 전했다. 상품은 이효진 주무관이 직접 준비했다.

"질문이 없어도, 꼭 참여해 보세요."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도 있었다. “2학년 멘토들이 현장 실습으로 바쁜 상황이다 보니, 연락이 하루이틀씩 늦게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멘토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멘티들에게는 “선배에게 연락할 때는 미리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한 번에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제 선배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라는 조언도 남겼다.

마지막으로 권희윤 담당자는 1학년 신입생에게 멘토링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현장에 있는 선배들의 조언이 농장의 현 상황과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습장이 운영되는지, 장단점 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이 없어도 꼭 참여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으로 2학년 선배와의 연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미래를 향한 작은 연결, 멘토링의 씨앗

우리 학교의 도제식 교육형태, 즉 장기현장실습 교육은, 1년 간 학우들의 실무 능력을 증진하고 현장 교수로 하여금 영농 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잘 맞는 실습장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 멘토링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동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다. 실습을 앞두고 막막한 1학년들에게는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멘토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으로 오간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로의 마음에 분명한 울림을 남겼다. 지금은 멘토로 활약하는 선배들 역시 누군가의 조언에 힘입어 길을 찾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이 선순환이야말로 한농대만의 따뜻한 전통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실습 멘토링프로그램이 신입생들에게 든든한 출발점이자, 한농대 공동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 조용한 연결의 힘이 더 많은 이들의 성장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의 다양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한우농장 신규창업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우와 관련된 또 다른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중 고민하다보니 학교 실습장 중에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실습장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실습장은 학교에서 예비실습장으로 후보군에 뒀던 곳을 열어주셔서 좋은 기회로 이 실습장에서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Q: 실습장을 선정할 때 정보를 어떻게 모으셨나요?

A: 우선 가장 중요한 1학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3학년 선배들에게 실습장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축제나 체육대회 때 학교를 방문하는 2학년 선배들이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때 관심 있는 실습장이 있으면 그 실습장의 실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습장의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작년에 운영되었던 실습장을 미리 리스트업을 하고 자신의 농업방향과 맞는, 집과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이를 통해 예비실습장 후보군을 선정했다면, 시간이 있을 때 실습장에 게시는 선배님께 양해를 구해서 해당 실습장 현장교수님께 허락을 받아 미리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9월 정도에 가고 싶었던 실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습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Q: 해당 실습장을 1학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A: 제가 있던 실습장의 경우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올해는 실습생을 받지 않았고 건물 준공이 끝나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실습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습장을 저희 한우 전공 창업농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우 전공에 왔다고 무조건 소를 키워야 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우와 관련된 산업, 농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금적인 리스크와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작정 축사를 운영하는 것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소 인공수정, 수정란채취와 만드는 것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습장을 한우산업에서 기반은 없으나, 한우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고 창업농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Q: 내년 실습장을 선택해서 갈 1학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어떤 실습장을 갈지보다는 자신이 2학년 실습을 통해 실습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습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경우 체력적인 부분을 미리 길러 놓는 것과 본인이 경험해보고 싶고 참여해보고 싶은 실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준비된 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습생 신분인 정정아 학우와 실습을 다녀온 최창익 학우는 서로 전공이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중심주제는 비슷하였다. 두 학우는 현재 1학년 학생들에게 실습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이들의 조언을 기억하고 추후 갈 실습장을 선택에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생들에게 감사하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실습부 박혜민 기자

daka3179@daum.net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의 시대,

지난해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몰 판매 거래액은 12조 8293억 원으로, 21년부터 매년 18.35%씩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시기에 오프라인 거래 가 불가해지자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추가 소비자의 유입과 온라인쇼핑 생태계 발전을 통해 온라인시장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중간 유통인의 부재로 식품공급망이 중단됨에 따라 실행가능한 해결책으로서 농민과 소비자 간 온라인직거래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있다. 일례로, 유럽 전역과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생산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거래로 유통채널을 전환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활성화되며 농민들에게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전문 유통 판매처로 직거래의 전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농산물직거래는 중간 과정을 줄여 농가로 전달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필요한 작목의 예약생산, 계약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이나 자원절약과 같은 환경적 이익이 크다. 더 나아가 도농 간 공동체 형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증진 등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농산물 직거래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초격차 확대와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실현의 일환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는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품질보증의 어려움, CS(고객 응대) 체계의 미비, 고품 농업인의 디지털활용도 한계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인 단위 농가나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의 직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품질보증의 어려움은 직거래의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문제로서, 기존 유통 체계에서는 도매시장, 유통센터,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이 확보되었지만, 온라인 직거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산물은 기후와 생육환경에 따라 품질 편차가 발생하기 쉽고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와 실물 간 괴리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다. 기존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온라인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농산물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크기와 같은 품질적 요건을 숙여 판매하는 일부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GAP, 유기농 인증, 로컬푸드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 제도 활용이 있다. GAP와 유기농, 무농약 인증 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로컬푸드 인증은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인증 가능하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기후위기현상 심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자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분야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이외에도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품질을 제3자 인증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인식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객경험 기반 마케팅(CX 마케팅)’ 역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청년농의 시대를 여는 규제 혁신" - 농산업 구조 혁신 속 청년농의 미래를 듣다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농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한 ‘54건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영농 초기부터 제도적 제약에 부딪히기 쉬운 청년농을 위한 변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농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예비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 기사는 청년농과 관련된 주요 변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1. ‘농의 근로 허용 확대’ - 정착률을 높이는 유연한 정책

기존의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는 청년농의 영농 초기정착을 돕기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농업 외 소득활동에 대한 강한 제약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월 100시간 이하, 연 5개월 이하의 농외 근로만 허용되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검입 급지’에 가까운 구조였다.

하지만 영농 초기 청년농의 수입은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 병해충, 작물 가격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따라 수입이 급감하기도 하고, 첫해부터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는 조건 하 모든 단기 근로가 허용되었다. 청년농은 농한기에 일용직 근무나 파트타임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게 되었고, 영농 정착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요건 완화 - 하지만 빠른 청년농을 위한 유통 개선책

최근 농산물유통은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공영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 또는 소매업체와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진입 장벽이었다. 기존에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했다. 창업 초기이거나 틈새작물을 다루는 청년 농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청년농에 한해 해당 매출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규모와 관계없이 품질 있는 농산물을 가진 청년농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해택’이 아닌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3. 공동영농 법인 설립 완화 - 협업과 확장의 구조적 토대 마련

청년농 창업의 또 다른 고민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통비, 장비, 인력까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에 따라 졸업 후 동료들과 함께 공동영농을 시작하려는 수요가 많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동경영체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이 까다로웠고, 특히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농지임대 시에도 법인의 자격조건이 걸림돌이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영농 단체구성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농업법인의 단독 사업

예시로 프리미엄 과일브랜드인 온브릭스(OnBrix)의 마케팅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온브릭스는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당도계(브릭스 측정기)를 활용해 농산물의 당도를 측정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효과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소비자는 현장에서 농산물의 당도를 수치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브릭스 수치와 실제 맛의 느낌을 비교할 수 있는 미각 체험존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체감품질 경험을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온브릭스는 오프라인 체험기반 마케팅전략을 통해 온라인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불신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 유도와 후기 생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전략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형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소규모 농가도 충분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변형·적용할 수 있다. 핵심은 고가의 체험장비나 대규모 팝업스토어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예를 들어,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 또는 마을 축제와 같은 오프라인공간에서 간이 당도계, 시식부스, 소포장 체험키트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간이 브릭스측정기나 QR코드기반 생산이력조회 시스템 등을 도입해 디지털경험을 결합하면, 저비용으로도 높은 고객만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체험공유 유도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제품 수령 후 소비자가 직접 당도를 측정하거나, 맛을 리뷰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게 유도하면, 온라인에서도 ‘간접 체험’을 통한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농가는 체험중심의 패키지 구성(예: 브릭스표시 라벨, 시식 노트 동봉, QR코드 링크 제공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인스타그램, 밴드,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고객관리 및 소통강화 전략도 소규모 농가가 비교적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고객경험 개선방안이다. SNS를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신뢰를 쌓는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작물의 생육과정, 수확 전후의 현장 모습, 포장작업 등 생산 전반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꾸준히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 농산물은 누가, 어떻게 길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인 CS(고객응대) 체계의 미비는 소비자 신뢰형성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대형 유통사의 경우 정형화된 고객센터나 매뉴얼을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농가 직거래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법인 또는 생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만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응대자동화도구의 보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at 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1:1 문의 자동응답템플릿을 만들거나 응답문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채팅봇 서비스를 활용해 응대의 자동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또는 SNS를 통해 댓글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로 고객의 문의나 피드백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CS 체계’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형 유통사처럼 정형화된 고객센터가 없어도, 생산자가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성 어린 응대로 인식되어 고객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SNS는

단골고객을 관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벤트 참여, 신상품 사전소개, 예약생산 알림 등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으며, 꾸준한 소통을 통해 브랜드 팬층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단발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재구매와 입소문 효과로 이어져, 추가적인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고품 농업인의 디지털활용도 한계는 온라인직거래 확산의 구조적 장벽이 있다. 농산물 온라인직거래에는 SNS 활용, 쇼핑몰 운영, 결제 연동, 고객 소통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이 요구되지만, 고품 농업인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낯설고 진입장벽이 높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품 농업인의 경우, 온라인 주문 확인이나 배송 관리조차 어려워 전자상거래 기반의 직거래 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과 같은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단순 이론중심의 강의보다 SNS 콘텐츠 제작, 스마트스토어 등록,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실습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제작, 사진보정, 태그 및 해시태그 전략과 같은 실제 운영기술을 교육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온라인유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컨설팅과 운영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직거래는 단순히 생산 지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판매, 유통, 마케팅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기에 많은 농가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품질 관리, 소비자 응대,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비농업적 요소가 수반되기 때문에 생산에만 집중해온 농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지역 단위협업 체제나 공동브랜딩, 혹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받아 소분, 포장, 마케팅, 판매 등 생산 이후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비즈니스모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농업인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직거래의 장점인 높은 수익성과 소비자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농협이나 공영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 경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유통 대행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자원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결국 농산물직거래는 단순한 판로 확대를 넘어, 생산자 주도의 유통구조 혁신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농업 경영 모델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분야이다. 이는 단순히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넘어서, 농업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의 브랜드화 및 소비자와의 신뢰기반 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직거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확대와 함께, 생산자 중심의 유통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025.02, 2025.04.15, 온라인쇼핑몰 판매매체별/상품군별거래액, 정책 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위크부 이재영 기자

JLee583@naver.com

이상기후로 농업 위기 직면하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지속되면서 지역에 따라 일조량이 평년의 70~80%에 머물렀다. 7월 초순과 9월 중순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고, 11월에는 117년 만에 최고치의 폭설이 중부지방을 강타했다. 이처럼 기온상승, 강수량의 증가 및 감소, 태풍의 빈도증가, 해수면 온도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업에 수확량과 품질 저하, 병해 및 소득 피해발생, 재배지 이동 등을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첫 번째로, 기온변화로 인해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라봉은 최근 전북 김제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무화과는 충북 충주, 포도는 강원도 영월, 사과는 경기 포천, 녹차는 강원도 고성, 복숭아는 경기도 파주로 재배지가 변화하였다. 두 번째로,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해 고령지 배추의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금금배추’ 논란이 9월 추석까지 이어졌다. 이로인해 공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세 번째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면 평균 온도는 17.8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인천, 경기, 전북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낚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망게, 굴 등이 대량으로 폐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폐사피해가 없었으나, 2021년에는 2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9억 5000만 원, 2023년에는 438억 원, 2024년에는 143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에 달했다.

앞서 설명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알아보았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1종의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40개 노지작물을 대상으로 저온, 가뭄, 태풍 등 15종의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이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CA저장고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세대 능동형 CA저장고를 현장에 적용한 결과, 사과(6개월 → 12개월), 만감류(1개월 → 3개월), 배추(월동 3개월 → 5개월, 봄 1.5개월 → 3개월) 등 농산물의 저장 기간이 최대 2배로 늘어났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양식 및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고수는 발생 전 긴급 방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내성품종연구와 재배보형상품 다양화 등 소득 안정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수확량과 품질 저하, 재배지 이동, 양식생물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온상승과 강수량의 변동, 폭염 및 폭우의 빈도 증가가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위크부 이준원 기자

jwgreg@naver.com

뒷면 계속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농동형 CA저장고를 개발하여 농산물 저장 기간을 늘리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내성품종 연구 및 재배보합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농민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앞서 설명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농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농민, 연구자, 정책자, 소비자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정연주 기자
yeonju212238@naver.com

전라남도4-H연합회를 찾아서

전남4-H연합회 견학 및 1, 2분기 회의 개최

전라남도4-H연합회(회장 허승원)는 지난 3월 11~13일에 부산광역시와 경남 거제시에서 전남도임원과 시군회장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선진지 견학과 1/4분기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남도 4-H 연합회 2/4분기 회의
(출처-전라남도 4-H연합회)

회원들은 거제식물원,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플랜비팜 기체협농장, 도시형 식물공장 등을 방문하여, 치유농업 사례, 사계절 식물-생태체험-관광상품으로의 연결 트렌드와 도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재생하는 활동을 보고 배웠으며, 분기회의에서는 회계보고와 도 아영대회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4-H중앙연합회 회장, 류진호 졸업생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된지도 3달이 지나고, 우리 학교는 종강을 앞두고 있다. 4월이 되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은 불긋 불긋한 벚꽃잎이 솟아나고, 어느덧 봄 분위기가 물씬 난다. 특히나 4월은 파종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옥수수, 당근,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의 임식이 시작되는 달이다. 오늘 소개할 류진호 졸업생의 작품, 유자 역시 이른 3월 초순에 파종을 시작해, 4월이 되면 싹이 튼다.

본 기사에서는 유자의 고장,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노란소쿠리’의 대표 류진호를 소개한다.



노란소쿠리 풍경
(출처-노란소쿠리 인스타 중)

유자의 고장, 고흥과 ‘노란소쿠리’

‘노란소쿠리’는 2014년, 우리 대학을 졸업한 류진호 군이 아버지의 고향인 고흥에 귀농하며 시작되었다. 조부가 운영하던 유자밭 1,500평(약 4,958㎡)과 후계농업인 자금 2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1,500평 토지를 추가 매입, 총 3,000평 규모의 유자밭에서 시작되었다.유자를 활용한 농촌교육농장

‘노란소쿠리’는 현재 1차 유자원물 생산, 2차 유자즙가공품, 3차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촌융복합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인증을 시작으로, 재인증까지 총 2회에 걸쳐 인증을 받았다. 농촌교육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교육적이면서, 다 회차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듯하다. 농업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여 초, 중, 고, 성인 가족단위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창업농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극복

그는 올해 창업농으로서 11년차를 맞이했다. 그가 농업을 접하면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지속적인 농업과 내 농장의 브랜드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후계 경영체와는 다르게 모든 것들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방법의 무지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얀도화지에 새롭게 그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이라는 자긍심을 늘 가슴속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

노란소쿠리, 앞으로의 목표

류 대표는 “그동안 노란 유자와 관련된 여러 생각들을 소쿠리에 담아 고객들에게 전하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유자 생산부터 가공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 다양한 경험을 얻었다”라며, 졸업 초기 설정했던 단기적인 농가 운영계획 및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 10년간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노란소쿠리의 다음 목표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농업의 범위는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중에서 앞으로 영농 현장으로 나갈 후배분들에게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으로서의 다짐

류 대표는 지난 11년간 고흥군4-H연합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홍보부장과 부회장 역임에 이어, 지난 2월 제40대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으로서 새출발을 시작했다. 그는 “4-H란, 농업인 학습단체로서, 지역 청년들의 개인 역량 강화 및 단체활동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단체”라는 말을 시작으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와 함께 농업 지역의 발전과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청년농들이 많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다짐을 밝혔다.

지난 해 기준, 전체 이랜드상 졸업생 3,295명 중 2,903명으로 약 90% 가량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농어업 경영 88.2%, 농어업취업 11.8%) 경영형태는 창업농(38.1%), 승계농(32.4), 부모합농(26.7), 기타(2.9) 순으로, 예상 외로 창업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런 듯 우리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은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창업농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고, 후계농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품목과 전공의 졸업생을 인터뷰하며 재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고흥 유자로 유명한 ‘노란소쿠리’의 류진호 대표를 인터뷰했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바로 ‘영농 운영에 있어 필요한 법률문제’일 것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졸업생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 번쯤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편집부 문지민 기자
dream_jimmy@naver.com

앞으로 빛날 후배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제 108호 학보에서 소개할 졸업생 후계농 동문농장은 정읍시 태인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감농농장이다. 이 농장은 표고버섯재배, 가공, 유통 등을 기업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6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감농농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1학번 버섯전공 졸업생 정일영 동문을 인터뷰하였다.

Q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21학번 버섯학과 졸업생 정일영입니다.

Q2. 현재 어떤 후계농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A2. 현재 정읍에서 부모님과 함께 “감농”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재배면적은 1만평을 운영하고 있고, 비닐 하우스 24개, 판별 재배사 8개, 연간 생산량은 약 260톤 정도 재배 중입니다.

Q3. 후계농을 하며 초기 단계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A3.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시고, 저는 학교와 외부교육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새로운 방식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Q4. 농업경영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A4.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판로개척입니다. 농산물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콩이나 벼는 수매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신선 식품인 버섯은 판로 개척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농업경영을 도우며 이 판로개척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판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농가는 상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의 품질이 좋으면 판로 개척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에,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5.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5. 현재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지 하나당 600g을 생산하고 있으나, 추후 700g으로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중국산 배지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 배지생산을 하고 유통센터를 건설하여 6차산업을 이루르는 농장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Q6. 후배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6.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농장견학을 통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전문 리더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작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농업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작물 간의 접목이 가능하므로, 시장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과정에서 생육기술을 배우는 것

이 쉽지 않지만, 연구실에서 균을 다루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Q7. 후배 농업인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A7. 농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많지만,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농업을 하며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장견학을 자주하기를 권장합니다. 미래의 청년농업인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감농은 단순한 표고버섯 재배를 넘어, 6차산업을 통해 미래농업의 방향성을 실현하고 있는 농장이다. 정일영 동문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현실과 비전,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의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은 한국 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도 우리 학보에서는 다양한 졸업생들을 인터뷰하여 학우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번 인터뷰가 농업 분야에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감농농장 버섯 재배사
(출처-정일영 졸업생)

사회부 정연주 기자
yeonju212238@naver.com

8천 동문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편집부
dream_jimmy@naver.com

매년 달라지는 졸업요건 ... 18~24년도 졸업요건 총정리

우리 대학은 실무중심의 교육과 현장적응능력을 갖춘 농수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졸업요건은 입학연도에 따라 세부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 개개인의 준비방향설정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2018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졸업요건을 정확히 비교하고, 관련 자격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18학번은 졸업논문 심사 통과가 필수이며, 이외에도 **120학점 이상, 평균평점 1.5 이상, 교과영역별 이수 요건, 청학관 또는 공동생활 과목** 이수가 요구된다.

19학번부터는 **전공 또는 농업 관련 자격증 1개 이상**이 필수 항목으로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성적 기준도 **평균평점 1.75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청학관·공동생활 과목**이수도 유지된다.

20학번과 21학번은 19학번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졸업논문은 없으며, **자격증 1종 이상 취득, 120학점 이상, 성적 평균 1.75 이상**이 필요하다. 학과별 이수과목은 조교 및 학부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2학번과 23학번은 자격증 요건 외에 **사회봉사 30시간**이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성적, 학점, 자격증 요건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사회참여 활동까지 요구되고 있다.

24학번은 공식적인 변경 공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 학번(22~23)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요건은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졸업자격증은 계열별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음은 학교에서 제시한 계열별 졸업관련자격증 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농업	농화학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축산	축산기능사, 축산기사
임업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목재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사
식품가공	식품기사, 식육처리기능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기계 및 운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정보통신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GTQ그래픽운용기능사

※ 위 자격증 중 일부는 **기능사, 기사, 산림기사 이상, 전문자격** 등으로 나뉘며, 전공에 따라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사무실을 통해 졸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졸업요건은 해마다 체계적으로 조정되며, 특히 실무능력과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자격증취득, 사회봉사, 공동생활과목 등은 단순한 요건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각 학년도 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격증 준비와 활동 이수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졸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졸업요건 충족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부 조승하 기자
04yujeong@naver.com

학교 발전의 기둥, 발전기금재단



발전기금재단 기부자 명단
(출처-양재혁 도서관장)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고 농수산업에 이끌어 나갈 유능한 후계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 개교하여,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인재 육성 대학으로 위상을 떨쳐왔다. 개교 당시 농업 관련 예산이 대략 7조 9,800억 원에 머무르던 반면, 점차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2025년에는 18조 7,416억 원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역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산물 수요증가는 곧 관행농업의 변화로 이어졌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수산업 분야의 AI 4차산업혁명 등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교육시설과 아낌없는 연구와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난 2019년 4월, 국내 최고 농수산업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교수, 연구, 장학 지원 및 교육관련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공익재단으로써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설립되었다.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

2018년, '게으른 농부' 영농조합법인의 2백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 7년간 123건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1억 원 이상의 기부자들로는 한국청과주식회사와 농업중앙회(물품), 1천만 원 이상의 기부자 중에서는 안창후 학부모의 3천만 원에 이어,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2천만 원, 농업회사법인 닥터에그㈜의 1천만 원 등이 이어졌다. 또 우리 학교의 장기현장실습장으로는 최초로 대립묘목농원(JB가든센터)의 현장교수가 500여만 원 기부에 동참했다.

더불어, 발전기금재단의 설립 이래로, 우리 대학에 뜨거운 애교심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수진이다. 말산업전공의 양재혁 교수가 400만 원을, 교양학부의 김진진 교수가 약 370만 원을, 식량작물 전공의 한옥규 교수와 송종섭 교수가 각각 220만 원, 100만 원을, 원예학부의 김승희 교수가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떠나고도 여전히 사랑을 드러내는 졸업생들이다. 농업회사법인 '감자밭'의 최동녀 대표, '쥬DS농업연구소'의 정승환 대표, 마지막으로 문형진 졸업생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기부행렬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기부가 이어져 왔다.

이렇듯 기업, 개인 상관없이 우리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에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의 기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길 바란다.

■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하려면 ...

온라인기부

한농대 홈페이지 - 발전기금재단 - 온라인기부

기부 약정

전화 약정

운영지원과 유지형 063-238-9425

방문 기부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사무실(본관 2층 운영지원과)로 직접 방문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제휴 301-0249-8364-31 (재단법인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입금자명 작성 요령: 기부자명(기관명) / 재학생 또는 동문의 경우 "홍길동(식작 15학번)"과 같이 입금자명을 기재

■ 우리 학교에 기부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닥터에그(주)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지난 4월 16일, 농업회사법인 닥터에그와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및 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과 함께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해 한국 미래농업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했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닥터에그(주) 기업은 국내 최대 버섯생산기업으로, 우리나라의 버섯재배 및 무역사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1996년 대흥농산에서 출발해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연간 2만 9,000톤 이상의 버섯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팽이버섯은 국내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여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상황이다.

2018년에는 스마트팜을 도입해 데이터기반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황이며, 현재 호주, 캐나다, 베트남, 유럽 등 10여 개국에 버섯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직원수는 약 400여 명이며, 그중 4명이 우리 대학 버섯전공 졸업생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은 농어업의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희망을 심을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대한민국 농어촌의 내일을 키우는 손길, 여러분의 기부로 시작됩니다."



편집부 문지민 기자
dream_jimmy@naver.com

입학 1달차,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소감

"입학 1달차,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소감"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사는 1학년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경험한 대학생활을 들어보고, 학우들이 서로의 고민과 즐거움을 공유해보고자 작성하였다. 1학년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생생한 경험을 담아보았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사는 1학년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경험한 대학생활을 들어보고, 학우들이 서로의 고민과 즐거움을 공유해보고자 작성하였다. 1학년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생생한 경험을 담아보았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은빈: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번 채소전공 나은빈이라고 합니다. 학보사 문화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고, 학생회 전략기획실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호: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번 양돈전공 최민호라고 합니다. 1학년 과대표이고 학생회 환경안전국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농대에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빈: 부모님께서 킴스베리 딸기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부모님처럼 저만의 농장을 설립하고자 졸업 후 실제 농장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싶었는데, 한농대의 커리큘럼 중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현장실습이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민호: 고등학교때는 사실 농업과 관련이 없는 공군부사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부모님께서 건네주신 한국농수산대학교 팜팻을 보고 이전에 꿈꿨던 저만의 농장창업과 팜팻리는 농사일이 더 끌리게 되어 한농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나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은빈: 모든 강의가 기억에 남지만 제가 배우고 싶었던 여러 작물의 생육방식, 농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수님들의 노하우와 함께 가르쳐 주는 전공수업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양은영 교수님의 시설원예총론과 안윤균 교수님의 채소원예총론 강의 속 전문용어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공부하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저는 양돈전공이지만 박규현 교수님의 시설원예총론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싶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내용을 배우는 것이 가장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셨나요?

은빈: 지도교수님이신 안윤균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 불교동아리(평은)에 가입했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었고, 선배님들과 절에서 스님의 말씀도 듣고 자연 풍경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기억이 나요.

민호: 개인 일정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입학 전 기대했던 대학생활과 실제 대학생활이 많이 다른가요?

은빈: 아직 학기 초라서 적응이 좀 더 필요하고 학우들간에 어색함이 아직 덜 풀리긴 했지만 학교생활은 생각만큼 아주 재밌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학우들과 친해져서 학교생활이 더 즐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호: 한농대에 입학하면 매일 농업에 대한 공부만 하게 될까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즐겁고 재밌는 학교행사와 활동이 많았어요. 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보람찼던 것 같아요. 다만 전공 수업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간의 대학생활동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은빈: 학생회 IT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입학 하기 전부터 학생회에 들어오고 싶었고, 입학 후에 처음으로 가는 캠퍼서 더 설렘어요. 캠퍼 자체도 다양한 활동을 해서 즐거웠고 많은 선배님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것이 많아요. 휴학하고 돌아오신 선배님, 다양한 나이의 선배님들이 들려주신 인생이야기가 제게 많은 도움이 돼서 즐거운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민호: 학생회 IT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숙소 도착후 회의 시간대는 모두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서 약간 긴장했는데 레크레이션 이후에는 마치 산악동호회처럼 구수하게 놀던 선배들의 반전 매력에 인상깊었어요. 먼저 많이 챙겨주셔서 덕분에 저도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나요?

은빈: 1학년 때 꾸준히 쌓은 이론 지식이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날들이 가장 기대됩니다. 농업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과, 시험을 거쳐 습득한 지식을 경진대회나 수업 발표에도 직접 활용해보고 싶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민호: 3년후 한농대를 졸업하게 될 때의 자신의 모습 가장 대가 돼요, 여러 가지 학교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또 내년에 가게 될 현장실습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3학년때는 제 창업 계획서를 졸업논문을 쓰고 졸업하게 될텐데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멋진 결실에 기대를 걸어보려 합니다.

1학년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한국 농업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진로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즐겁게 배워가는 모습에 선배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단순한 '학점 따기'가 아닌 '삶의 준비'로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린 자세로 배움을 이어가며 성장하길 바란다.

실습부 정정아 기자
jja050915@naver.com

인생사진과 함께 떠나는 캠퍼스 여행



PTC온실
(출처-김한별 기자 촬영)



항기나래 도시숲
(출처-김한별 기자 촬영)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학교는 아직 낯설고 어색한 공간일 수 있다. 하지만 교정 곳곳에는 공부뿐 아니라 휴식과 영감을 주는 다채로운 장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본 기사는 캠퍼스 내 다섯 가지 공간을 소개함으로써, 신입생들이 학교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고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 PTC 온실 - 작은 정글 속 심포 한 조각

원예학부의 다양한 전공실습이 이뤄지는 'PTC 온실'은 마치 작은 정글을 연상케한다. 초목식물들 사이로 조용히 걸다 보면, 자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평온함이 느껴진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 때의 온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빛과 초록이 어우러진 풍경은 사진을 찍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2. 항기나래 도시숲: 숨어 있는 포토존의 발견

학생식당 뒤편에 위치한 항기나래 도시숲은 많은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지는 산책로가 조성된 공간이다. 이 도시숲은 산림청이 전주혁신도시와 한국농수산대학교 생활권에 편백나무숲길을 조성하며 만들어졌다. 숲의 향기가 새들의 날갯짓처럼 퍼져나간다는 의미의 '항기나래'라는 이름처럼, 도심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햇살이 스치는 나뭇가지 아래서 친구와 함께 남기는 사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따뜻한 장면이 된다.

3. 유아숲: 조용한 사색의 산책로

학생식당 '다온' 뒤편 길을 따라 걸다보면, 학교 뒷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인 유아숲에 도달하게 된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지는 이곳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장소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산의 풍경은 마치 살아 있는 자연 교과서와 같다.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조용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다.

4. 과수실습동: 계절이 열매를 맺는 시간

과수실습동은 봄의 꽃,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열매 등 계절의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시

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자연이 학생들의 배움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며, 자연광이 좋은 날 나무 사이에서 찍는 사진은 계절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5. 첨단실습동: 기술과 현장이 만나는 배움의 공간

첨단실습동은 학생들이 안전관리와 농기계실습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는 주요 교육공간이다. 실외에는 다양한 농기계들이 정비되어 있으며, 넓은 실습장에서는 학생들이 실제처럼 장비를 다루며 배움을 이어간다. 무언가를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진짜 배움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다른 풍경들과는 또 다른 무게감과 실용성을 지닌다. 강의실이 아닌 현장에서의 배움을 기록하고 싶다면, 기계와 작업공간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겨보는 것도 좋다.

학교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사실 우리에게 늘 재미있고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다. 가끔은 지치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이 기사를 따라 걸어보는건 어떨까?

학교의 다섯 가지 풍경을 따라 걸어보면, 이곳은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을 느낄 수 있다. 낯설던 길이 익숙해지고, 지나치던 장소가 추억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작은 여행이 신입생들에게 학교와 친해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이 쌓이기를 기대한다.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즐겁고 배움 가득한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문화부 김한별 기자
zxkts0123@naver.com



과수실습동
(출처-김한별 기자 촬영)



유아숲
(출처-김한별 기자 촬영)



첨단실습동
(출처-김한별 기자 촬영)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025. 6. 30. (월) ~ 7. 11. (금) 18:00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 ① 국내 유일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대
- ② 학생 전원 국비 지원
- ③ 미래 전문 농수산인 양성
- ④ 국내외 선진 농어장 현장실습
- ⑤ 영농·영어 정착시스템

문의 입학팀 | 063-238-9621~3

홈페이지 주소 | www.af.ac.kr

